

비대면 통합심사 프로세스 도입

NH농협은행, 'NH공무원대출' 출시

삼품 가입 여정 단축 3분이면 대출 실행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경민)는 디지털 공무원 신용대출 통합심사 프로세스를 도입한 비대면 전용 'NH공무원대출'을 출시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디지털 공무원 신용대출 통합심사 프로세스는 고객이 한 번의 대출 신청 정보 입력으로 협약대출과 신용대출 전 상품에 대한 대출 가능금액, 금리 등을 한눈에 비교해 상품을 선택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상품 가입 여정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3분이면 대출 실행까지 가능하다.

NH공무원대출은 NH스마트뱅크 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대상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확인된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공무원 중 연소득이 3,000만원 이상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5,000만원(미이너스통장 최대 1억 원)이며 중도 상환해약금은 면제된다.

금리는 금여이체(0.30%p), 자동이체(0.20%p), 신용(체크)카드 보유(0.20%p) 등 우대금리 최대 1.00%p 적용 받을 수 있다.

상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NH스마트뱅크 또는 고객센터(☎1661-3000)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아이스수박' 오늘 특별 판매

전북농협-전주원에농협, 라이브커머스 통해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과 전주원에농협(조합장 김우철)은 중북을 맞아 25일 농협전북본부 온라인지역센터에서 '아이스수박'을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특별 판매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정재호 본부장은 "장미와 더불어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는 분들을 위해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을 선물해드리고자 이번 라이브커머스 특별 판매를 진행한다"면서 "앞으로도 소비자에게는 질 좋고 건강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농업인들에게는 농업소득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유통 트렌드 라이브커머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양정희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장은 지난 21일, 남원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수군 변암면에 위치한 동화저수지를 방문, 가뭄극복을 위해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경영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양정희 농어촌공 전북본부장, 동화저수지 방문

"용수 확보 최선 다 해달라"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는 양정희 전북지역본부장은 지난 21일, 남원지사(지사장 이충호)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수군 변암면에 위치한 동화저수지를 방문, 가뭄극복을 위해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경영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전북도내에서 남원지사 구역 내 가뭄이 제일 극심한 상태이며, 주수원공인 동화저수지 저수율이 28%로 앞으로 비가 더 내리지 않을 경우 용수 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

이에 남원지사는 가뭄극복을 위해 주수원공 위주의 간담(격일제) 급수와 농업인 800여명에게 매일 물절약 홍보 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며, 인근지사 저수지 방류용수를 동화저수지로 유입시키는 한편, 피수 재할용을 위해 양수기를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정희 본부장은 "용수 확보에 최선을 다해 농업인의 영농급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기후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등으로 물 관리 전문가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하루 두 끼 밥심" ... 정읍서도 '한마음'

정읍시농협 정읍지부 쌀 소비촉진 운동 동참

정읍시와 농협 정읍시지부(지부장 이재연)는 지난 22일 정읍시청에서 '하루 두 끼는 밥심'으로 라는 주제로 범 시민 쌀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했다.



정읍시와 농협 정읍시지부(지부장 이재연)는 지난 22일 정읍시청에서 '하루 두 끼는 밥심'으로 라는 주제로 범 시민 쌀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했다. 이날 행사에 이학수 정읍시장은 '대한민국 농업의 중심 정읍쌀 지키기 릴레이 챌린지'를 진행하며 쌀 소비촉진 운동에 동참했다.

이날 행사에 이학수 정읍시장은 대한민국 농업의 중심 정읍쌀 지키기 릴레이 챌린지를 진행하며 쌀 소비촉진 운동에 동참했다. 이 자리에는 이학수 정읍시장을 비롯하여 고경운 정읍시의회의장, 전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주 농협조합운영협의회장, 이재연 농협정읍시지부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출근길 공무원과 시민 500여명에게 소포장 쌀을 나누어 주며 소비촉진 홍보 활동을 펼쳤다.

지난 6월 25일 기준 산지 쌀값은 공급과잉과 소비부진으로 80kg기준 18만원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이상 하락 하면서 수확기 벼 값 폭락이 우려되는 상황이

다. 이에 따라 정읍시와 농협은 지역내 쌀 재고 과잉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하락중인 쌀값 안정화를 위해 범시민이 함께하는 쌀 소비촉진 운동을 시작 했다.

이재연 지부장은 "릴레이 챌린지 행사에 참여해 준 이학수 정읍시장에 비해 19%이상 하락 하면서 수확기 벼 값 폭락이 우려되는 상황이

공기 반 수준에 불과 하여, 하루에 두끼만 소비한다면 1인당 1일 소비량이 50g 증가하고 시민 10만 명이 동참 했을때 1일 5톤의 소비 효과가 있으니 하루 두 끼 밥심으로 건강도 지키고 쌀산업과 농업인도 지킬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21일 2022년 상반기 농식품 마케팅대학 수료식을 열고 농식품산업의 혁신을 이끌어 갈 54명의 인재를 배출했다.

농식품산업 혁신 이끌 인재 54명 배출

상반기 마케팅대학 수료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준진)는 지난 21일 2022년 상반기 농식품 마케팅대학 수료식을 열고 농식품산업의 혁신을 이끌어 갈 54명의 인재를 배출했다.

해 경영환경 메가 트렌드 뉴노멀 시기 생존전략, 온라인상표와 전략 수출 전략 등을 학습하고 우수현장 견학 및 국내 연수를 통해 상호 비즈니스 협력방안 등을 모색했다.

특히 메타버스와 빅데이터 등 최신 트렌드 실무교육을 진행해 교육생들이 급격히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전 세계적인 화두인 ESG 경영 관련 교과목을 확대 편성해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핵심 가치를 전파했다.

양인규 농식품유통교육원장은 "농식품 마케팅대학의 전문교육과정은 우리 농식품 기업들이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한다"며,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을 제공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한편 농식품유통교육원은 오는 8월 4일까지 '2022년 하반기 농식품 마케팅대학' 교육생을 모집한다. 농산물 마케팅 전문기(6개월), 농식품 온라인 유통 경영인(6개월) 2개 과정으로 교육시간은 주 1회 5시간 총 17주 과정이다.

교육이수 시 과정별 성적 우수자에게는 장관상 사장상 교육원장상 등이 수여되며, 수료 후에도 농식품 관련 최신 유통지식과 현장정보 등을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생 산발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후 서류전형을 통해 선 발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원 유통연구소 전화(031-400-3570) 또는 홈페이지(http://educat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LX-TS,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확대 '맞손'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경렬)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이 교통안전점을 제고하고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확대를 위해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LX공사 김경렬 사장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지난 22일 경북 김천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에서 '공간정보 및 교통안전 분야 기술협력·정보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LX공사 김경렬 사장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지난 22일 경북 김천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에서 '공간정보 및 교통안전 분야 기술협력·정보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기술협력과 정보공유를 통해 AI 기반 교통사고 위험도 예측모델 'T-sat'를 개발하고 디지털SOC 생태계 조성을 위한 도로정보 플랫폼을 구축에 협력하게 된다.

또한 드론·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항공 분야 안전한 비행환경 조성 을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고 인력양성에 주력하는 한편 해외시장 진출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LX공사 김경렬 사장은 "양 기관이 갖는 강점을 토대로 데이터 거버넌스

를 구축하여 정확한 도로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로가 윈윈이 되어 미래 모빌리티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윤상기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베트남 기획부 장관 예방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2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응우옌 쩌 중 베트남 기획부 장관이 양국 중소기업 협력 방안과 한국 중소기업의 현지진출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기획부 장관은 외국인 투자 및 공적개발원조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로 지난해 4월 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 비즈니스·투자 웨비나를 공동으로 개최한 바 있다.

이날 김기문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는 한국과 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로 그간 양국의 교역액은 16배 늘었으며, 특히 한국은 베트남 제1의 투자국으로 발돋움했다"며 "최근에도 한국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력을 갖춘 한국 중소기업의 현지진출이 베트남 경제성장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 베트남 정부가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한국 중소기업들의 안정적인 진출환경을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

응우옌 쩌 중 베트남 기획부 장관은 "경제교류 확대를 통해 양국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동반진출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한국기업들의 베트남 투자와 진출에 애로가 없게끔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무주·광주 새마을금고

상생 네트워크 협약 체결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박세식)는 무주새마을금고에서 무주새마을금고(이사장 유성주)와 광주새마을금고(이사장 이일봉) 간 도·농 새마을금고 상생 네트워크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2일 두 새마을금고가 맺은 상생 네트워크는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박치훈)가 2021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도시와 농촌의 동반성장을 통해 지역사회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무주새마을금고와 광주 새마을금고는 앞으로 상호 호혜 및 상생의 원칙에 따라 협력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 금고 활성화와 이익증진 두 금고의 지속가능한 상생사업,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통해 새마을금고 네트워크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도·농 새마을금고 간 교류를 이어가기로 했다.

무주새마을금고 유성주 이사장은 "도·농 새마을금고 상생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의 취지에 맞춰 이번 협약을 통해 무주새마을금고가 활성화되고 두 금고의 지속가능한 상생사업이 이뤄지면 좋겠다"며 이번 협약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상생사업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